Market Talks
교육 센터

암호화폐 · 초급 · 15강 중 1강

무엇이 돈을 돈으로 만드는가

돈이 해내야 하는 일, 돈을 돈답게 만드는 특성, 그리고 수천 년 이어진 이야기 속 암호화폐의 자리

읽는 시간 9분 퀴즈 7문항, 정답 포함

암호화폐 · 초급 · 15강 중 1강

무엇이 돈을 돈으로 만드는가

한 문장 요약

돈이란 사람들이 교환할 때 널리 받아들이는 무엇이든을 말합니다. 물건을 살 수 있고, 가격을 재는 기준이 되며,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지키는 세 가지 일을 잘 해내기 때문입니다. 금, 지폐, 은행 잔액이 모두 이 일을 해 왔고, 암호화폐는 가장 새로운 시도입니다.

돈이 없던 시절: 물물교환의 문제

돈이 전혀 없는 마을을 상상해 보세요. 한 어부가 빵을 원해서 생선 한 바구니를 들고 빵집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빵집 주인은 오늘 생선이 필요 없습니다. 새 외투를 원하죠. 그래서 어부는 생선을 원하는 재단사를 찾아 생선을 외투로 바꾼 다음, 그 외투를 빵집 주인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모든 거래는 양쪽이 마침 상대가 가진 것을 정확히 원할 때만 성사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욕구의 이중 일치**라고 부르며, 이것이 **물물교환**의 근본적인 약점입니다. 사람과 물건이 많아질수록 짝을 찾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거래는 아예 일어나지 않고, 생산 대신 찾는 데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제 마을 사람 모두가 받아들이는 물건 하나를 더해 봅시다. 자신에게 필요 없더라도 나중에 다른 누군가가 받아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물건입니다. 어부는 생선을 그 물건과 바꾸고, 그것으로 빵값을 냅니다. 이제 누구도 완벽한 짝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물건이 바로 **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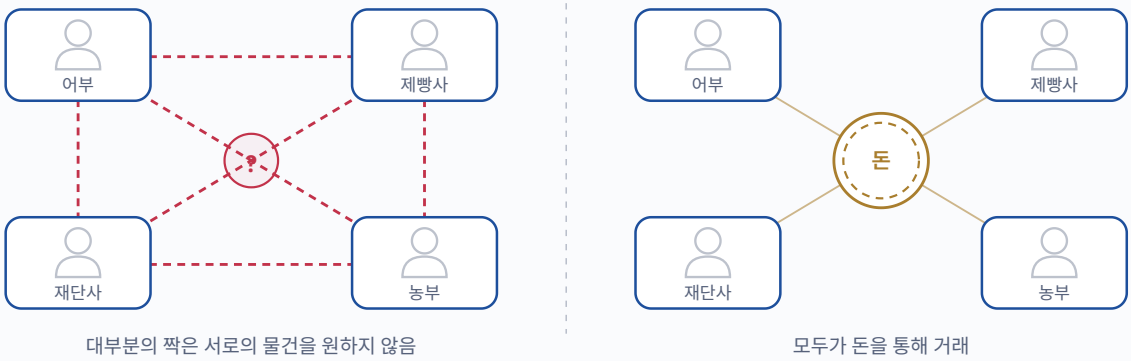


그림 1. 돈이 없으면 거래자 한 쌍 한 쌍이 짝을 찾아야 하고, 대부분은 찾지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각 거래자는 모두가 받아들이는 하나만 상대하면 됩니다.

예시: 짝의 수 세어 보기

돈 없이 거래자가 4명이면 가능한 짝은 6쌍이고, 각 쌍이 저마다 맞는 상대를 찾아야 합니다. 거래자가 50명이면 짝은 1,225쌍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각 거래자에게 필요한 관계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돈 자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모든 사회는 조만간 무언가를 돈으로 쓰기로 정해 왔습니다.

돈이 해내야 하는 세 가지 일

어떤 형태를 띠든, 돈은 세 가지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로 평가받습니다.

- **교환의 매개.** 물건값을 치를 수 있고, 상대방은 군말 없이 받아 줍니다. 물물교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 **가치의 척도.** 가격이 돈으로 표시됩니다. 커피가 4이고 책이 20이면, 책 한 권이 커피 다섯 잔 값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공통된 잣대가 있어야 비교하고 계획하고 장부를 쓸 수 있습니다.
- **가치의 저장.** 내년에도 오늘과 거의 같은 만큼을 살 수 있으므로, 지금 벌고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은 서로를 받쳐 줍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을 때 기꺼이 그것을 대금으로 받으며, 가격은 크기가 매일 바뀌지 않는 단위로 표시될 때만 쓸모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돈이 한 가지 일을 제대로 못하기 시작하면 보통 다른 일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림 2. 돈의 세 가지 일. 각각이 나머지를 받쳐 주므로, 하나가 약해지면 보통 나머지도 타격을 받습니다.

좋은 돈의 특성

이 세 가지 일을 해내려면 돈에는 몇 가지 물리적, 실용적 특성이 필요합니다. 수 세기에 걸쳐 여섯 가지가 두드러졌습니다.

- **내구성.** 썩거나 녹슬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 **휴대성.** 큰 가치도 쉽게 가지고 다니거나 보낼 수 있습니다.

- **분할성.** 작은 구매를 위해 작게 나눌 수 있고, 큰 구매를 위해 합칠 수 있습니다.
- **균일성.** 한 단위가 다른 단위와 똑같아서, 누구도 하나하나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대체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 **희소성.** 누구도 쉽게 또는 싸게 더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가치를 잃을 것입니다.
- **폭넓은 수용성.** 다른 사람들이 받아 줍니다. 결국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며, 나머지 다섯 가지에서 자라납니다.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돈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저마다 맞교환이었고, 돈의 역사는 대체로 사람들이 한 묶음의 맞교환을 더 나은 묶음으로 바꿔 온 이야기입니다.

비유: 토마토가 끝내 돈이 되지 못한 이유

토마토를 돈으로 써 본다고 해 봅시다. 며칠이면 썩으니 내구성이 없습니다. 크기가 제각각이니 균일하지 않습니다. 텃밭만 있으면 누구나 더 기를 수 있으니 희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금을 써 봅시다. 수천 년을 버티고, 순금은 한 온스 한 온스가 똑같으며, 전 세계 공급은 아주 천천히 늘어납니다. 하나는 금고에, 다른 하나는 샐러드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개껍데기에서 화면까지: 짧은 역사

초기 사회는 조개껍데기, 소금, 곡물, 가축처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물건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상품 화폐**라고 합니다. 위의 특성 거의 모두에서 더 나았기 때문에 금속이 서서히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알려진 최초의 주화는 기원전 7세기 말 오늘날 튀르키예 서부에 있던 **리디아**에서, 금과 은의 천연 합금인 일렉트럼으로 주조되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주화는 큰 진전이었습니다. 발행자가 무게와 순도를 보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거래할 때마다 금속의 무게를 달고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종이였습니다. 중국 쓰촨에서 상인들이 처음으로 **교자**라는 지폐를 발행했고, 1024년 송나라 정부가 자체 공식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종이는 꿰어 놓은 동전 꾸러미보다 훨씬 들고 다니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험도 따라왔습니다. 더 찍어 내는 데 돈이 거의 들지 않았고, 이후 송나라 정부들은 지폐를 너무 많이 발행해 그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상당 기간 동안 많은 통화가 금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폐는 정해진 양의 금속으로 바꿔 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미국 달러에서 이 연결은 **1971년 8월 15일**에 끊어졌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외국 정부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없다고 발표한 날입니다. 그 뒤로 세계 주요 통화를 떠받치는 것은 그것을 발행하는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뿐이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림 3. 돈의 짧은 역사.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물건에서, 발행자가 보증하는 주화와 지폐를 거쳐, 발행자 대신 공개 규칙이 뒷받침하는 비트코인까지.

오늘날 돈을 떠받치는 것

오늘날의 달러, 유로, 원, 엔은 **법정 화폐**입니다. "Fiat"는 라틴어로 "그리 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법정 통화로 선언하고, 세금을 그 돈으로 내게 하며, 중앙은행이 그 양을 관리하기 때문에 돈에 가치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 체계를 믿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그 대부분은 종이조차 아닙니다. 영란은행에 따르면 지폐와 동전은 영국 경제에 있는 돈의 약 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은행 예금, 즉 블록체인 1강에서 본 계좌 속 숫자입니다.

법정 화폐에는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융 공황을 진정시키거나 깊은 불황에 빠진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돈을 풀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공급이 해마다 늘어날 수 있고, 돈이 그 돈으로 사는 재화와 서비스보다 빨리 늘어나면 물가가 오릅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이며, 내가 가진 한 단위 한 단위의 **구매력**을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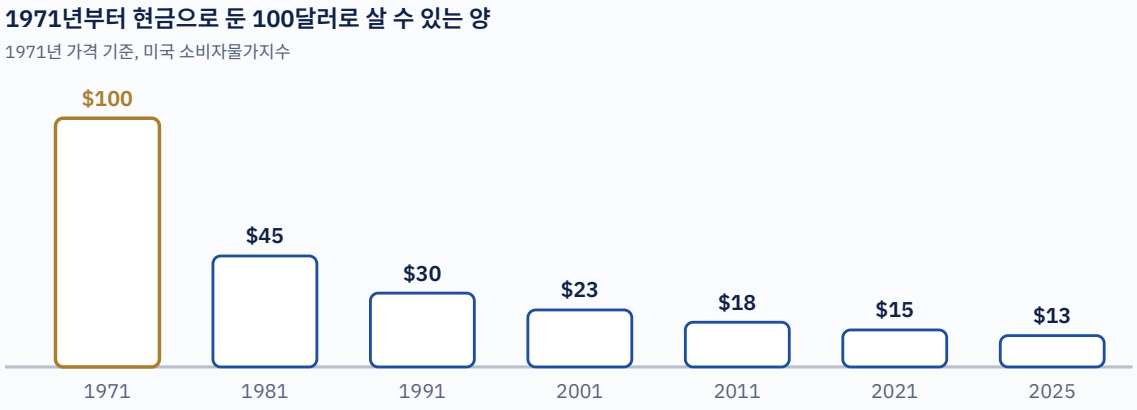


그림 4. 1971년부터 현금으로 보유한 100달러의 구매력.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기준입니다. 2025년에는 같은 상품을 약 13달러어치만 살 수 있습니다.

예시: 1971년 이후의 100달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1971년에 평균 100달러였던 상품 바구니는 2025년에 약 795달러였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1971년부터 서랍에 넣어 둔 100달러로는 오늘날 같은 상품을 약 13달러어치밖에 살 수 없습니다. 상품이 좋아져서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1달러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었을 뿐입니다.

암호화폐의 자리

2009년 1월에 시작된 비트코인은 **발행자가 없는** 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누구도 규칙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찍어 낼 수 없습니다. 공급은 2,100만 비트코인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새 코인은 시간이 갈수록 느려지는 고정된 일정에 따라 나옵니다. 2,000만 번째 비트코인은 2026년 3월에 채굴되었고, 마지막 비트코인은 2140년 무렵 채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는 정부나 은행 대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규칙을 믿으며, 블록체인 과정 전체가 바로 이 생각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돈의 특성에 비춰 보면 평가는 엇갈립니다.

- **강점:** 설계상 희소하고, 몇 분 만에 전 세계로 보낼 수 있으며, 사토시라는 1억 개의 단위로 나뉘고, 닳지 않습니다.
- **논쟁 중:** 모든 코인의 이력이 공개되어 범죄와 연결된 일부 코인은 거부될 수 있으므로, 현금보다 단위의 균일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 **아직 약함:** 가격 변동이 큽니다. 2021년 11월 약 6만 9,000달러의 최고가를 기록한 뒤 1년도 안 되어 비트코인은 70% 넘게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가격을 매긴 커피는 매일 새 가격표가 필요할 테니, 지금으로서는 좋은 가치의 척도가 아닙니다. 수용성도 제한적입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했지만, 2025년 1월 비트코인 수용을 자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비트코인을 일상적인 현금이라기보다 가능성 있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여기며, 흔히 디지털 금에 비유합니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이 역할을 지킬지는 금융계의 큰 미해결 질문 가운데 하나이며, 진지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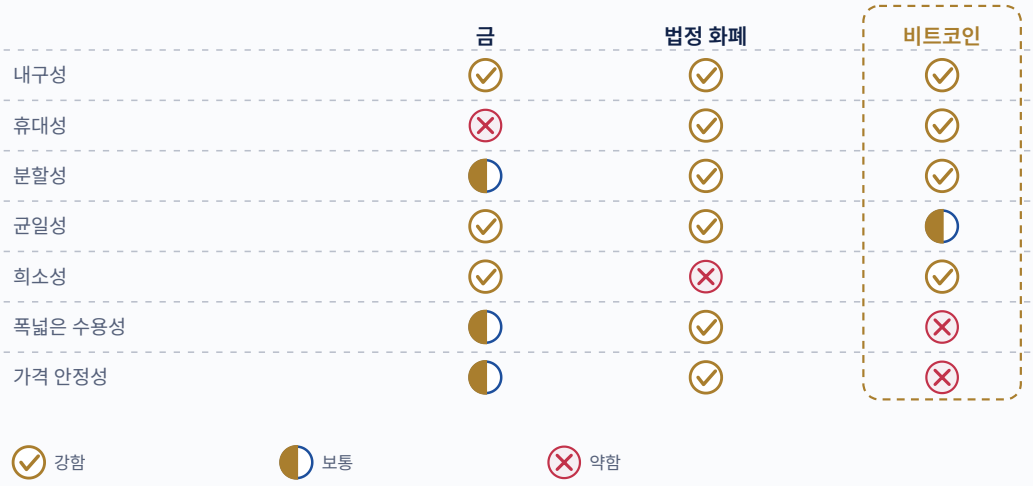


그림 5. 좋은 돈의 특성에 비춰 본 세 가지 돈의 간략한 평가표. 법정 화폐는 은행 잔액을 포함해 달러 같은 정부 발행 화폐를 뜻합니다. 몇몇 평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세계가 내놓은 두 가지 다른 답

암호화폐 세계는 돈의 특성이라는 문제에 서로 꽤 다른 두 가지 답을 내놓았고, 이 과정 내내 둘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 **비트코인 같은 희소 자산**은 고정되거나 예측 가능한 공급과 어떤 발행자로부터도 자유로운 점에 집중하며, 큰 가격 변동을 그 대가로 받아들입니다. 2강에서는 비트코인의 공급과 반감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봅니다.
- **스테이블코인**은 반대로 합니다. 코인마다 준비금이나 다른 자산을 쌓아 두어, 보통 1미국달러인 안정된 가격을 목표로 합니다. 암호화폐 세계 안에서 교환의 매개와 가치의 척도로는 훌륭하지만, 믿어야 하는 발행자를 다시 불러옵니다. 6강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작동하고 언제 실패하는지 설명합니다.

어느 쪽도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조개껍데기, 금, 종이가 그랬듯이, 각자 다른 맞교환의 묶음을 고른 것입니다.

트레이더에게 왜 중요한가

- **돈의 이야기가 가격을 움직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거나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비트코인과 금을 지지하는 희소한 돈이라는 논리가 더 많은 관심과 매수자를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긴축하고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 암호화폐는 2022년처럼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모든 가격에는 양쪽이 있습니다.** BTC/USD는 달러로 잰 비트코인입니다. 이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강해졌거나, 달러가 약해졌거나, 둘 다일 수 있습니다. 달러를 지켜보면 비트코인과 금의 움직임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 척도입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쌍과 많은 선물 계약의 손익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USDT,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계산됩니다.
- **변동성은 양날의 검입니다.** 비트코인을 약한 가치의 척도로 만드는 바로 그 큰 변동이 트레이더를 끌어들입니다. 그만큼 포지션 규모와 리스크를 더 차분한 시장보다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핵심 용어

물물교환	돈 없이 물건을 다른 물건과 직접 바꾸는 것. 양쪽이 상대가 가진 것을 원할 때만 성립합니다.
교환의 매개	자신에게 필요 없더라도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의 대가로 받아들이는 것.
가치의 척도	가격을 표시하는 기준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가치의 저장	시간이 지나도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 지금 벌고 나중에 쓸 수 있게 해 줍니다.
대체 가능성	서로 바꿀 수 있음: 같은 종류의 모든 단위가 다른 어떤 단위와도 같습니다.
법정 화폐	정부가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돈. 금이나 다른 상품과의 연결이 아니라 그 체계에 대한 신뢰에서 가치가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 돈 한 단위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구매력	돈 한 단위로 실제로 살 수 있는 양.

핵심 정리

1. 돈은 물물교환의 문제를 풀기 위해 존재합니다. 돈이 없으면 모든 거래에서 양쪽이 상대가 가진 것을 정확히 원해야 합니다.
2. 좋은 돈은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이라는 세 가지 일을 해냅니다.
3. 내구성, 휴대성, 분할성, 균일성, 희소성, 폭넓은 수용성이 필요하며, 모든 형태의 돈은 이 특성들 사이의 맞교환이었습니다.
4. 1971년 이후 세계 주요 통화는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떠받치는 법정 화폐이며, 그 구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5. 비트코인은 희소성, 휴대성, 분할성에서 점수가 높지만 변동성 때문에 아직 가치의 척도로는 약하고, 스테이블코인은 그 반대의 맞교환을 택합니다.

실력 점검

각 문제에 답을 하나씩 표시하세요. 해설이 포함된 정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markettalks.info에서 온라인으로 퀴즈를 풀고 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 물물교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 A 물건의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진다
- B 양쪽이 상대가 가진 것을 정확히 원해야 한다
- C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다
- D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2. 가게의 가격이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은 돈의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 A 가치의 저장
- B 교환의 매개
- C 가치의 척도
- D 담보

3. 토마토가 형편없는 돈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너무 귀하다
B 나누기 어렵다
C 썩고, 크기가 제각각이며, 누구나 더 기를 수 있다
D 토마토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4. 1971년 8월 15일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A 최초의 지폐가 인쇄되었다
B 외국 정부가 더 이상 미국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없게 되었다
C 비트코인이 출시되었다
D 유로가 각국 통화를 대체했다

5. 영란은행에 따르면 영국 경제에 있는 돈 가운데 지폐와 동전은 대략 얼마인가요?

A 약 3%
B 약 25%
C 약 50%
D 약 90%

6. 인플레이션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구매력을 높인다
B 현금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C 한 단위로 살 수 있는 양을 줄인다
D 금으로 바꿔 준다

7. 비트코인이 현재 가장 약한 돈의 일은 무엇인가요?

A 희소함
B 국경을 넘어 보내기
C 작은 단위로 나누기
D 안정된 가치의 척도가 되기

정답 및 해설

1 B

양쪽이 상대가 가진 것을 정확히 원해야 한다

이것이 욕구의 이중 일치입니다. 돈은 이 문제를 없애 줍니다. 상대가 내놓는 것이 필요 없을 때도 모두가 돈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2 C

가치의 척도

하나의 공통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가치의 척도라는 일입니다. 덕분에 전혀 다른 물건들의 가치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C

썩고, 크기가 제각각이며, 누구나 더 기를 수 있다

토마토는 내구성, 균일성, 희소성에서 탈락합니다. 좋은 돈은 오래가야 하고, 모든 단위가 같아야 하며, 더 만들어 내기 어려워야 합니다.

4 B

외국 정부가 더 이상 미국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없게 되었다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 창구를 닫았습니다. 그 뒤로 세계 주요 통화는 금이 아니라 발행자에 대한 신뢰가 떠받치는 법정 화폐가 되었습니다.

5 A

약 3%

약 3%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돈의 대부분은 은행 예금, 즉 실물 현금이 아니라 은행 데이터베이스 속 기록입니다.

6 C

한 단위로 살 수 있는 양을 줄인다

물가가 오르면 돈 한 단위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듭니다. 1971년부터 가지고 있던 100달러로는 오늘날 같은 상품을 약 13달러어치밖에 살 수 없습니다.

7 D

안정된 가치의 척도가 되기

비트코인의 큰 가격 변동 때문에 가격을 표시하는 데 쓰기 어렵습니다. 희소성, 휴대성, 분할성은 뛰어나서, 많은 사람이 대신 가능성 있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여깁니다.

출처

- LBMA, 리디아의 일렉트럼 주화: https://www.lbma.org.uk/wonders-of-gold/items/lydian-electrum-coin
- 위키백과, 교자 (화폐): https://en.wikipedia.org/wiki/Jiaozi_(currency)
- Federal Reserve History, 닉슨, 미국 달러의 금 태환 중단: https://www.federalreservehistory.org/essays/gold_convertibility_ends
- 영란은행,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https://www.bankofengland.co.uk/explainers/how-is-money-created
- US Inflation Calculator, 1913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BLS CPI-U): https://www.usinflationcalculator.com/inflation/consumer-price-index-and-annual-percent-changes-from-1913-to-2008/

- Kraken, 2,000만 번째 비트코인 채굴: https://blog.kraken.com/news/industry-news/20-million-bitcoins-mined
- Fox Business, 비트코인 2021년 고점 대비 70% 넘게 하락: https://www.foxbusiness.com/markets/bitcoin-falls-down-more-than-2021-high
- Cointelegraph, 2025년 현실로 돌아온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구상: https://cointelegraph.com/news/el-salvador-bitcoin-aspirations-closer-earth-2025

Market Talks

계속 학습하기

다음: 2강 돈으로서의 비트코인: 고정된 공급량과 반감기

이 강의는 MARKET TALKS 교육 센터의 암호화폐 과정에 속합니다. 초급 강의는 무료이며 강의마다 퀴즈와 다운로드 가능한 PDF가 제공됩니다. 중급과 고급 강의는 회원 전용입니다.

교육 센터
기초 원리부터 고급 주제까지 다루는 강의

시장 분석
주요 시장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리포트
비트코인, 금, 은, SPX 등

markettalks.info

텔레그램 @MARKET_TALKS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이 문서의 어떤 내용도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 2026 MARKET TALKS. 이 PDF는 수정 없이 자유롭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